

현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포상금 준 회사

현금을 산처럼 쌓아놓은 채 연례회의를 개최한 후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중국의 한 회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허난성 신상에 소재한 광산기중기유한공사는 지난 17일 춘제 연휴를 앞두고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총 1,600만 위안(약 236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쌓아놓고 직원들에게 지난 1년간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산처럼 쌓아놓은 현금(왼쪽)과 들고 가던 현금 뭉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직원. 사진=dianodistro.pt

만 위안(약 73만7천 달러)의 보너스를 전액 현금으로 전달했다. 행사장 무대 앞에는 거액의 현금이 마치 산처럼 진열됐고, 진행자가 호명한 지난 한 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이 잇따라 무대 위로 올라 차례로 상여금을 받았다. 포상금 전액이 현금으로만 지급된 데다가 그 액수가 큰 탓에 일부 직원들은 포상금을 품에 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던 도중

에 현금 뭉치들을 바닥에 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고액의 보너스를 받은 영업부 소속 직원 평 모 씨는 "지난해 영입이 잘돼 이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라고 말했다.

이날 연례회의에서는 총 40명의 직원들에게 현금 보너스가 지급됐으며, 그 가운데 가장 고액의 보너스를 수령한 직원 3명은 모두 영업부서에 소속된 이들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직원들에게 회사는 각각 500

아들 부탁에 여탕 몰카 찍은 어머니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부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여자목욕탕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아마경찰은 여자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토미 씨(63)와 그의 아들 아키노리(37) 씨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토미는 지난해 8월부터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각종 목욕 용품과 빗, 수건 등을 채워 넣어 들키지 않게 위장한 후 20여차례에 걸쳐 나고야 시내의 여자목욕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토미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왔다 갔다하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사토미는 조사에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 는



▲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왼)를 숨긴 목욕 바구니. 사진=article.auone.jp

아들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 며 "아들이 약 20년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 고 진술했다.

아키노리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 팔린다는 것을 알고 판매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판매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거액 재산 상속 포기하고 승려 된 소녀



▲ 평소의 데반시 상비(왼쪽)와 4일간의 '딕샤' 의식을 끝내고 승려가 된 상비의 모습. 사진=duuren.life

거액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자이나교 승려가 된 소녀가 화제이다.

18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인도의 8살 소녀인 데반시 상비는 보석회사 '상비 앤 선즈(Sanghi and Sons)' 의 상속인이었다. 인도 신용평가사 ICRA에 따르면 이 회사의 순자산은 50억 루피(약 6,130만 달러)에 달한다.

상비는 최근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사찰에 들어가기 위해 4일 동안 자이나교에서 행하는 '딕샤(diksha)' 의식을 치렀다. 이후 상비는 머리카락을 모두 깎고 흰색 옷으로 갈아입은 후 사찰로 들어갔다.

이 의식을 지켜본 사람들은 상비가 신도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앙심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고 전했다.

인도 전통 종교인 자이나교는 4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으며 비폭력, 엄격한 채식주의 및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가르친다. 상비의 가족도 모두 자이나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나교 신자들을 때때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사찰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사찰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선 13세의 소녀가 하루에 두 번 물만 마시며 두 달간 단식을 하던 중 사망하기도 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